

DOVE

life trend magazine

(dó:ve)는 어디로 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입니다

이탈리아 명품 브랜드
아이스버그
iceberg



정기구독자에게 선물로 드립니다

austria **wien**
road no.7
hotel story

슈퍼마리오 보타씨의
비장의 필봉 전략대해부!



한국경제신문 마케팅 대상 수상!

MARKETING

design your life after work

DOVE

design your life after work!



trend magazine

은 이드로 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입니다

스트리아를 즐기는 10가지 비법

새로운 명물 MQ 대탐험

이진짜 명품이다! 빈프로덕트

색을 만드는 서머트래블러 패션

하대! 아이 러브 아이스버그 스타일

없는 여름을 위한 스킨케어

엔 7번 국도에서 나만의 행운을 찾자!

레포츠를 위한 필수 아이템

에서 여름나가 특급 호텔 패키지

동부록 <도베>가 선정한 클럽에프 빌리지 베스트 5

austria **wien**
road no.7
hotel story

슈퍼마리오 보타씨의
비장의 필봉 전략 대해부!



도베

대한민국판
july 2003
www.design.co.kr

한국경제신문 마케팅 대상 수상!

MAR
KET
TING

Das Möbel

가구 카페

주소: Burgasse 10

tel: (43) 1 524 9497, 홈페이지: www.dasmoebel.at



을 살 것임에 틀림없다. 커피를 주문하는데도 규칙과 예의가 있는 법. 20가지도 넘는 이상한 종류의 커피들 가운데 가장 애호하는 것을 골라야 하는 것이 조금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, 만약 그냥 “커피 한 잔이요” 했다가는 수석 웨이터인 오베르 Ober는 속으로 “외지인이로군” 하며 당신이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세 알아챌 것이다.

커피는 은쟁반에 물 한 잔과 함께 나오는데, 특히 물잔 위에 스푼을 얹어놓는 것이 전통적인 서빙 방식이다. 이 물 한 잔의 의미는 ‘당신이 이곳에 온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’이다.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, 음미하며, 살살 쓰다듬듯 혀를 굴리는 동안 시간은 햇빛처럼 흐른다. 이 한 모금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? 커피 하우스에서는 그렇게 앉아 있고 싶은 만큼 앉아서,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.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. 커피 하우스에는 모든 종류의 신

문이 비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. 중심가의 커피 하우스에는 정기 간행물이나 외국의 신문도 비치되어 있다. 학생은 공부하고, 과외 선생은 교습을 하고, 작가는 글을 쓴다. 체스를 하건 카드를 하건 당구를 치건 할 수 있는 것이다. 우유를 넣은 커피 멜랑제를 앞에 두고 알뜰한 자금이 투입되는 비즈니스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. 빈 시청과 국회 근처에 몇 곳의 훌륭한 커피 하우스가 있는 것은 이곳에서 흔히 중요한 비즈니스 활동이 벌어지기 때문이다.

“커피 하우스에 갔다 올게”

만약 어떤 빈 사람이 “나 커피 하우스에 가”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가 어느 커피 하우스를 말하는지 알아챌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. 각각의 커피 하우스는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개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. 모든 커피 하우스가 인간의 다양한 성품을 모두 담을 수는 없는 노릇



story~sacher torte



자허 토르테 원조싸움

자허 토르테는 안에 살구잼을 넣고 초콜릿으로 덮은 케이크로, 1832년 빈의 유명한 호텔 겸 레스토랑의 주인인 프란츠 자허 Franz Sacher가 처음 만들었다. 1887년 한 해 동안에만 200~400개 가량의 케이크가 매일 호텔 자허의 주방에서 만들어져 멀리 베를린, 파리, 런던까지 배달되었다. 현재는 12명의 요리사가 매일 500~600개의 자허 토르테를 만들고 있으며,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하루에 3000개나 생산한다.

자허 토르테 Sacher Torte의 원조는? 이 문제를 둘러싸고 유명 커피 하우스의 대표 격인 호텔 자허 Hotel Sacher와 데멜 The Demel 카페 사이의 심각한 공방은 1938년과 1953년 두 차례나 벌어졌다. 특히 1953년에는 자허 토르테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살구잼 부분이 당의 바로 밑에 있는지 아니면 케이크 중간에 있는지가 논쟁의 판건이었다.

호텔 자허는 심지어 일본인 스파이가 호텔 자허의 주방에서 이 케이크의 제조 비법을 훔쳐가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. 그 비법이라 함은 케이크 반죽에 들어가는 4가지 초콜릿이 무엇이라는 것이다. 또한 잼에도 비법이 숨어 있는데, 호텔에 따르면 이 케이크에 사용되는 잼의 68%는 과일이라고 한다.

The Furniture라는 이름의 카
빌 Das Möbel'은 1998년 봄
그의 친구들이 뜻을 모아 오
곳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들은
음료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
가능하다. 일종의 전시장 겸
이다. 맨 처음에는 마르쿠스 친
리스트들의 작품을 동원했지만
신의 작품을 전시하려는 디자
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. 전시
인 작가의 작품으로, 새로운 재
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.
주인인 마르쿠스가 앉아 있는
00유로 정도 하며, 4000유로
싼 제품도 있다.

이라, 자신에게 꼭 맞는 '나만의 커피 하우스'를 발견하
기까지 아마 그는 수많은 커피 하우스를 전전했을 것이
다. 이것은 마치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아서 언제 어떻
게 어느 곳을 발견하게 될지 알 수 없다. 그저 갑자기
불꽃이 튀는 화학 작용처럼 당신은 "아, 이곳이 내 커피
하우스로구나"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.

빈의 전통적인 커피 하우스 중에 카페 하벨카 Café
Hawelka는 오스트리아 작가인 한스 바이겔 Hans Weigel
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그의 집 거실이나 다름없
이 애용했던 곳이다. 작가와 지식인들이 술 마시고 헤매
는 동네로 정평이 나 있는 도로테어가세 Dorotheergasse
의 좁다란 골목에 있는 곳으로, 화가 훈더트바서도 이
곳의 단골이었다. 벽에는 아직도 당시 화가들이 커피값
대신 그려준 그림들이 붙어 있다.

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거의 고사할 뻔했던 커피
하우스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. 카페 그리엔스타

이 Café Grienstei이 같은 곳은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작
가, 예술가, 철학가들로 붐볐다. 카를 크라우스 Karl
Kraus는 이곳에서 모든 신문을 읽었고, 그가 발행하던
선동적인 잡지 <디 파켈 Die Fackel>에 기고할 날카로운
글을 썼다. 유명한 문학가인 페터 알텐베르크 Peter
Altenberg는 대부분의 식사를 카페 센트랄 Café Central에
서 했고, 자신의 우편물을 이곳에서 수신했다. 글을 쓰
고 사교를 하며 거의 그의 거실로 삼다시피 했다. 심지
어 아돌프 히틀러조차도 유명한 카페인 카페 슈페를
Café Sperl에 빈번하게 출입하며, 인종 문제에 관한 자신
의 의견을 큰 소리로 설파하곤 했다.

관광객들로 붐비는 커피 하우스에서 빈의 젊은 연
인들이 키스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혹자는 슬픈 어조로
통탄할 것이다. "커피 하우스도 예전 같지 않아." ❊

에디터 • 감소영 | 사진 • 이한구